

세균 걱정 없는 천연 가습기 소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걱정 없이 가습기를 틀지 않고도 건조한 집안 실내습도를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겨울철 답답하고 건조한 실내 습도를 적정 습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농촌진흥청이 최근 제시했다. 답은 바로 가습효과가 뛰어난 식물을 기르는 것.

1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는 40~60%인데 비해 겨울철 가정의 실내 습도는 30% 이하로 매우 건조한 편이다. 적정 습도 유지를 위해선 가습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도 실내에서 식물을 잘 기르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

농촌진흥청이 건조한 집안의 실내습도를 올리는데 효과적인 식물로 추천한 것은 행운목, 홍콩야자로 불리는 셰플레라, 장미허브, 돈나무 등 4종이다. 가정에서 많이 기르는 식물 92종 가운데 실험을 거쳐 가습 효과가 뛰어난 식물을 뽑은 결과다. 농촌진흥청이 가습 효과가 뛰어난 식물과 물의 가습 효과를 실험한 결과, 물에 의해 실내 습도가 10% 증가하는 동안 식물은 약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식물은 보통 잎이 크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대체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이온을 다량 배출하는 것이어서 겨울철 실내에서의 식물재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가습효과가 뛰어난 식물을

농촌진흥청 추천 '가습효과 높은 식물'



행운목 셰플레라 장미허브 돈나무

뿌리서 세균 완전히 걸러주고 물 떠놓는 것보다 습도 4배 증가

넓은 잎 식물이 효과적...행운목·셰플레라는 햇빛 피해 길러야

실내에서 기르는 방법도 제시했다. 행운목과 셰플레라는 햇빛이 강한 창가보다는 거실 안쪽에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밝을수록 가습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직사광선은 피하되 가능한 한 밝은 곳에 두고 기르는 게 포인트다. 반면 장미허브와 돈나무는 햇빛을 매우 좋아한다. 때문에 베란다나 창가에서 기르는 것이 좋다.

물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주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목, 셰플레라, 돈나무는 손가락으로 흙

표면을 약 1cm 깊이로 만졌을 때 물기가 느껴지지 않을 때 물을 줘야할 시점이다. 처음 식물을 구입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 표면을 만져보면 대략 며칠 간격으로 물을 줘야 할지를 알 수 있다. 장미허브는 거의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좋다.

큰이 식물 크기별로 분류해 물주는 시기를 따진다면 보통 1m 이상 되는 큰 식물은 5~7일 간격으로, 중간 크기는 3~4일이 알맞다. 30cm 이하의 작은 식물은 1~2일에 한차례 물을 주는 게 좋다. 물을 줄 때는 한꺼번에 많

이 주지 말고 화분을 3곳으로 나눠 조금씩 주면서 흙 속으로 물이 고루 퍼진 후 나머지 물을 줘야 한다. 화분 밑으로 물이 약간 나올 정도로 주고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은 다시 화분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도 된다. 잎의 먼지도 씻어낸 겸 한 달에 한두 번은 베란다나 화장실로 옮겨 잎에서부터 물을 흠뻑 준다. 한나절 정도 그대로 뒀다가 제자리로 옮기면 생육도 좋아지고 광합성과 증산 작용이 활발해져 가습 효과가 더욱 커진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식물에 물을 주면 물이 뿌리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완전히 걸러지기 때문에 식물에 의한 가습은 세균 걱정이 전혀 없는 천연 가습기"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장하나의원과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결과(3차)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사용자는 128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18명으로 파악됐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은 지난 2011년 산모 4명이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으로 잇따라 숨지면서 불거졌고, 정부는 살균제의 일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피해 구제에 나섰다. 환경부는 그러나 2014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는 환경성질 환으로 규정하고도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피해접수를 마감해 반발이 일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울무를 제거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아직도 무등산에 밀렵 도구가...

야생동물 보호기간 울무 25점 수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행위 단속과정에서 불법업구 25점을 발견해 모두 수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등산사무소는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2015년11월~2016년3월)을 맞아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 북구청, 야생동물보호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들과 지난 14일 무등산 일원에서 불법 수렵도구 수거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무등산 내에서 멧돼지 포획을 노린 밀렵꾼들이 설치해 둔 것으로 보이는 25점의 울가미를 발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실제 밀렵행위 성급 여부와 무관하게 총기나 석궁을 휴대하고 공원 구역에 진입하기만 하더라도, 그물의 경우 설치만하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등산사무소는 야생동물 특별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월말까지 공원에서의 밀렵행위와 불법 업구류 설치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문광선 무등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광주시민이 사랑하는 무등산에서 아직도 불법 수렵도구 발견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생동물 또한 무등산을 구성하는 생태계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가 함께 무등산의 자연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화 '마션'의 감자처럼...우주서 백일홍 개화 성공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미국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우주에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다. 오른쪽 사진은 영화 '마션' 중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를 기르는 장면. <NASA 홈페이지·스콧 켈리 트위터>

영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처럼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일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미국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우주에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켈리는 트위터에 "우주에서 자란 첫 번째

꽃이 선을 보인다"는 글과 함께 백일홍 사진을 올렸다. 식물이 가능한 이 꽃은 샐러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꽃은 2014년 5월 ISS에 설치된 '채식주의자 연구실'에서 자랐다.

ISS 대원들은 앞서 로메인 상추와 채소의 일종인 아루굴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꽃을 피우는 식물이 우주에서 자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S에서 진행하는 '채식주의자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트리트 스미스는 "백일홍은 상추와 아주 다르다. 환경적 한도와 조명의 특징이 더 민감하고 발육 기간도 60~80일로 상추보다 길다"며 이번 개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미스는 "백일홍은 키우기가 더 어려운 식물"이라며 "더 오랜 기간에 걸쳐 백일홍이 핀 것은 토마토도 재배할 수 있으리라는 의

미"라고 덧붙였다. '우주 백일홍'은 지구의 백일홍과 유사한 형태다. 꽃잎 끝 부분이 휘어졌다는 점만 다른데, 무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인간연구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알렉산드라 휘트마이어는 "인공인덱스가 자연적 요소가 제거돼 고립되고 제한적이며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실시하는 장기급 임무를 식물이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서구, 석면 지붕 철거 지원 대상자 모집

광주시 서구는 지역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가, 처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불법투기 되는 것을 막고 철거과정에서 흡기 모를 건강 해손을 예방하기 위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구는 올해 국비 등 5700만원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확보하고 1인당 336만원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금액을 부담한다. 지원 사업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동주민센터와 서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서구는 슬레이트 면적과 거주자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검토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는 서구청 청소행정과 062-360-7971, 또는 각 동주민센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해드립니다!

밀착토크 **동민-이찬소 Show**

MC 공형진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
--	---	---	------------------------------------	---